

보도설명자료

('22. 1. 1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ESS REC 가중치는 도입 당시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며, 3차례 지원기간을 연장한 이후 사전예고를 통해 예정된 시기에 종료됨

(1.14일자 한겨레 「새만금 태양광 ‘반쪽 가동’... 정책 바뀐 탓 저장장치 못 갖춰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- 최근 상업발전에 들어간 새만금 육상태양광이 에너지저장장치(ESS) 없이 가동되고 있음
 - 정부는 '20년말 전기요금 인상부담을 이유로 '21년부터 ESS 연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REC 가중치를 폐지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태양광 연계 ESS 공급인증서(REC) 가중치*는 도입 당시('16.9월)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('16~'17년말) 지원하는 것으로 고지되었음

* 태양광 연계 ESS 가중치 : 5.0 ('16.9~'17.12)

- 이후 ESS 화재 등을 고려하여 3차례에 걸쳐 지원기간을 연장하였고, '19.9월 고시개정을 통해 '20년말까지 가중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전에 예고하였음

* ①('17.12) 1차 6개월 연장(5.0, ~'18.6.30), ②('18.6) 2차 18개월 연장(5.0(~'19년), 4.0(~'20년)). ③('19.9) 3차 6개월 연장(5.0(~'20.6.30), 4.0(~'20.12.31))

** '19.9월 ESS에 대한 REC 가중치 종료내용을 담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

- 태양광설비와 연계한 소규모·개별 ESS 보급은 초기 ESS 산업 저변을 확대하였으나, REC 수익을 위한 단순 충·방전식*으로 계통과 별개로 운영됨에 따라 계통 기여가 제한적인 점과,

* 특정시간대 집중 방전, 수익을 위한 과다 충·방전 → 계통에 부담, 화재위험

- ESS의 높은 가중치(4.0~5.0)에 따른 과도한 REC 발급이 REC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대로 가중치 지원을 종료함

□ 정부는 산업생태계 회복과 계통운영 기여를 위한 공공 ESS 구축, 차세대 전지 개발·시장 개척 등을 지속 추진중에 있음

- 전력계통 안정화 등을 위한 대규모(1.4GW) 공공 ESS 구축 추진 중

* 공공 ESS 구축사업 : '22~'23 / 11,202억원 / 공공기관 예타 추진 중

- 전고체 등 ①차세대 이차전지 조기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, ② 고신뢰-장주기 ESS, ③선박용 ESS 개발, ④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제품 개발 등 신시장 창출을 통한 ESS 활성화 및 다변화 추진 중

* ①전고체·리튬황·리튬금속 등 차세대 전지개발·실증('23~'28 / 3,066억원, 예타 추진 중)

②고신뢰-장주기 대용량 RFB ESS 개발('21~'23, 435억원)

③선박용 고안전성 ESS 패키징 기술개발사업('21~'23, 306억원)

④EV·ESS 사용후배터리 응용제품 기술개발 및 실증('21~'24, 205억원)

※ 문의: <산업통상자원부>

이재식 재생에너지정책과장(044-203-5360) / 송상현 사무관(5364)

문병철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(044-203-3920) / 김희장 서기관(3925)